

해설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과제' 무엇을 담았나

자유도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자치권한 강화·자치재정 확충 등 부처 협의 39건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 포함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 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그동안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수용된 39건으로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재정 확충,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이 들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지역 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권 이양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 권한 부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주민자치회 기능 및 지원 강화, 행정시장(임명직)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촉 방식 개선(추천→공모) 통한 독립성·전문성 제고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 등이다.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현재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양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사후신고)하고 있으나 부적격 사업자가 카지노업을 인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시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인가 조건 위반시 제재(허가취소, 사업정지 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권=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운영규정이 제주실정에 맞지 않아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 권한=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등의 조치 권한이 없어 제주도 자체 대응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감염병 예방 및 재난 사태 발생 등 필요시 도시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정지·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JDC는 지역 농어촌발전을 위해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 일부(1~3%)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자율 출연하고 있다. 보다 안정적 기금 확보를 위해 JDC 지정면적의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 5% 이내에서 국토부·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출연토록 했다. JDC 전체 순손실시 미출연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권한은 도시사에게 이양되었으나 미이행시 조치명령 권한은 이양이 안 돼 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자에 대해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시사에게 이양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제자유도시 정의를 '사람과 상품이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의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으로 수정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난 2019년까지 6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총 466건의 국가사무가 이양됐다. 고대르기자 bigroad@ihalla.com

코로나로 힘든 화훼농가 돕기 '한마음' 서귀포농협·농업경영인 단체 등 적극 동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서귀포시와 지역 농협이 꽃 소비 확산에 힘쓰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최근 행사 취소 및 간소화로 꽃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 화훼 농가를 위한 꽃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역 농가가 재배중인 백합, 튜립, 양란(심비디움) 꽃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 지난 18일 기준 절화와 화분 등 5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청사 환경정비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앙동주민센터도 100만원 상당의 꽃 화분을 구입해 아동기구 90여 곳

에 전달했다. 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회장 김대인)와 여성농업인서귀포시연합회(회장 고옥금)에서도 회원들간 꽃 소비 확산 운동을 전개해 100만원 상당의 꽃을 구입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농협(조합장 현영택)과 중문농협(조합장 김성범)은 심비디움과 백합 1400만원 상당의 꽃을 구입해 시민들에게 무료 나눔 행사를 추진하며 꽃 사주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귀포농협, 중문농협, 대정농협(조합장 이강철)은 '화훼농가 돕기 프로젝트'로 하나마트 매장에서 백합과 튜립 판매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3150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백금라기자

우도 해중전망대 경관·건축 심의 통과 도경관·건축공동위, 12일 신속 심의·원안의결

우도 주민 간에 찬반 논란이 거센 '우도 해중전망대' 건설 사업이 7차례 도전 끝에 경관·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우도해중전망대 신속 심의를 열어 원안으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150억원을 투입해 오봉리 전출동 공유수면 2000㎡에 길이 130m, 폭 3m의 다리와 높이 9m, 지름 20m 규모의 원형 건물을 세워 이 건물의 하부 유리창에서 바닷 속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자는 지난해부터 경관·건축 심의를 받아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이번에 일부 디자인을 변경해 7번째 심의 받은 끝에 통과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을 놓고 우도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려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찬성 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반대 측은 바다 환경 파괴와 생활 쓰레기 문제 등 부작용을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올해 첫 공공기관 통합 공채 내달 24일

도내 8개 기관 79명 선발

올해 첫 제주지역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4월 24일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1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일정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통합 채용을 통해 도내 공기업과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등 8개 기관이 7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5명, 제주관광공사 2명, 제주에너지공사 7명,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4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5명, (재)제주환의약

연구원 1명, (재)제주테크노파크 2명이다.

직렬(직급)별 선발인원을 비롯해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정 등 시험 관련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공기관 직원 채용정보 또는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5일부터 4월 9일 까지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jeju.incruit.com)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기관 또는 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한편 도내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이상민기자

양봉농가 등록 안 하면 벌꿀판매 등 제한된다

등록제 따라 8월까지 등록해야

올해 8월까지 지정 규모 이상의 양봉농가가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벌꿀판매 등이 제한된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연생태계에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제가 의무화됐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 및 기준은 사육 규모인 경우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은 30군 이상이 해당된다. 또 사육 시설은 오염원 유입의 차단 시설(비닐하우스·텐트 등) 및 소독 시설, 일반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는 꿀벌 주의 안내 표지를 게시·설치해야 한다.

제주시 지역 전체 양봉농가 256곳 가운데 3월 현재 등록농가는 56농가(서양종 52, 토종 2, 혼합 2농가)로 파악됐다. 시는 나머지 농가의 경우



정세균 국무총리-4·3유족회 간담회 1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4·3유족들과 간담회를 통해 4·3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 8월까지 등록을 완료해 양봉산업을 제도권내에서 육성·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양봉농가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벌꿀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양봉농가 등록제를 계기로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기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700만원(지방비 3억5000만원, 자부담 1억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꿀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소초광(인공 꿀벌집), 종봉(여왕벌)육성에 필요한 화분(꽃가루), 벌꿀 포장재 등 3개 사업에 2억2300만원이 지원된

다. 또 ▷채밀기·개발별 등 양봉기자재 지원에 1억3400만원 ▷양봉 기반시설(생산·가공·포장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 양봉 명품화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투자,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을 보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남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자방개방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집 시공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출청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